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 및 자아정체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 은 희[‡]
경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어떤 유형의 불안정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와 자아정체성이 불안정 애착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5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8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진로미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이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는 진로미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정체성 성취는 진로미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의 매개효과가, 애착회피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유실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불안정 애착과 불안정한 자아정체성 상태(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불안정 애착이 불안정한 자아정체성 지위 상태를 심화시켜 결국에는 진로미결정을 초래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불안정 애착, 애착불안, 애착회피, 자아정체성, 진로미결정

[†] 이 결과물은 2007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은희, (631-701)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 449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e-mail: ehlee@kyungnam.ac.kr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많은 발달적 도전을 직면하는 시기로서, 50%의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Morgan & Ness, 2003), 진로선택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체감을 명확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Super, 1957). 비록 일부의 사람들은 생의 초기에 진로목표를 찾아서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성인초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로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Gaffner & Hazler, 2002).

진로미결정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능력이 없고 진로선택에 전념할 능력이 없으며 (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 진로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Germeijs & Boeck, 2003)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Crites, 1981). 그런데 지금까지의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는 "잘하는 결정"과 "잘못하는 결정"이 있음을 가정하고 양 결정간의 차이와 구분준거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진로미결정 상태를 개선시키고 나아가 진로결정으로의 촉진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들과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하지 못한 상태인 진로미결정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이 '문제 상태'의 원인과 관련변인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들이 있다(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진로결정유형에 대한 분류는 초기에는 결정상태(decided)와 미결정 상태(undecided)의 단순한 이분법적 분류(Holland & Holland, 1977)를 하였으나 현재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다차원적 분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De Bruin & Du Toit, 1997; Fuqua, Blum, & Hartman, 1988; Fuqua &

Newman, 1989; Jones, 1989; Larson, Heppner, Ham, & Dugan, 1988; Lucas, 1993; Newman, Fuqua, & Minger, 1990; Rojewski, 1994; Savickas, 1995; Stead, Watson, & Foxcroft, 1993; Vondracek, Hostetler, Schulenberg & Shimizu, 1990; Wanberg & Muchinsky, 1992; Gorden & Meyer, 2002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도 고등학생(배중훈, 2001), 전문대생(박헌일, 김기원, 2003) 및 대학생(장선철, 2004)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자신과 직업적 기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발달적 미결정 상태와 성격적인 우유부단함과 정체성 혼란 및 특성불안에서 발생하는 만성적, 일반화된 미결정 상태의 두 가지의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Betz, 1992; Lewko, 1994; Santos & Coimbra, 2000; Nota, Ferrari, Solberg, & Soresi, 2007에서 재인용), Germeijs와 Boeck(2002)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이들 두 가지 구성개념이 다름을 확인한 바 있다. 만성적 진로 미결정 집단은 높은 불안수준, 자신과 선택과정에 대한 부정적 사고, 확산된 개인적 정체감이 특징이며(Cohen, Chartrand, & Jowdy, 1995; Chartrand, Rose, Elliot, Marmarosh, & Caldwell, 1993; Meldahl & Muchinsky, 1997; Saka & Gati, 2007에서 재인용), 정서적 성격적인 면에서 유래하는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한다(Amir & Gati, 2006; Santos, 2001). 진로를 결정하려는 사람들 중 적어도 16%는 심리적 문제들로 인한 우유부단한 사람들로서 전통적인 진로상담을 통하여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Hartman, Fuqua, &

Blum, 1985; Osipow, Camey, Winer, Yanico, & Koschir, 1976; Brown & Brooks, 1991에서 재인용) 이들에게는 진로문제보다는 성격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임을 시사한다. 즉 만성적 진로미결정자들의 진로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격적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진로결정이 주로 청소년 후기에 이루어지고 (Schneider & Stevenson, 1999), 진로미결정이 심리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Multon, Heppner, Gysbers, Zook, & Ellis-Kalton, 2001), 진로미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대학상담센터의 일반적인 관심사이다 (Chandler & Gallagher, 1996). 진로 상담이 진로 미결정 학생들로 하여금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때, 진로상담 영역에서 진로미결정의 선행변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진로목표를 명확히 찾으려는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개입전략에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Downing & Nauta, 2010).

Saka, Gati 및 Kelly (Saka & Gati, 2007에서 재인용)는 선행연구들에서 진로미결정 및 우유부단한 성격과 관련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확인된 변인들의 원인과 공통적인 특징들 및 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진로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정서적 성격적 요인들의 분류법을 개발하였다. 즉 그들은 비관적 시각과 불안 및 자기개념/정체감이라는 3가지 군집에 기초하여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11가지 범주를 제안하였다. 비관적 시각 군집은 자신과 세계에 관한 역기능적 지각과 부정적 인지적 편견과 관련된 어려움들로 구성되어 있고, 불안군집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불안과 관련된 어려움들로, 자기개념 및 정체감 군집은 그 개인의 보다 심층적이고 만성적인 성격적 측면과 관련된 어려움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진로미결정의 원인으로 비관적 시각 군집인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이재창, 최인화, 2006), 우울(박정희, 이은희, 2008), 불안군집인 불안(박정희, 이은희, 2008), 자기개념 및 정체감 군집인 자기효능감(김민선, 서영석, 2010; 김은영, 2010; 우지선, 2005), 자아정체감(김은진, 천성문, 2001; 박정희, 이은희, 2008), 애착(김미자, 정남운, 2008; 김은진, 천성문, 2001) 등 임이 밝혀진 바 있다.

정애경 등(2008)은 국내의 진로미결정 관련연구 총 100편을 가지고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 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이 진로미결정과 높은 부적 상관, 자기효능감이 중간 정도의 정적인 상관, 애착이 진로미결정과 작은 부적 상관에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박정희와 이은희(2008)는 진로미결정의 성격변인들 중에서, 비관적 시각군집으로서 우울, 불안군집으로서 불안과 강박증, 자기개념 및 정체감 군집으로서 자아정체감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자아정체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변인임이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참고로 하여 진로미결정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성격적 특성으로서 자기개념 및 정체감 군집인 자아정체감과 애착을 선정하여 어떻게 이들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동기의 중요한 대상과의 애착경험이 나중의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쳐서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Perrone, Webb,

& Jackson, 2007). 애착은 아동과 양육자간의 감정적이고 밀접한 관계로서(Roelofs, Meesters, Huurne, Bamelis, & Muris, 2006), 유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유형이 성인기에도 지속된다(Shaver & Hazan, 1993). 결국 생애 초기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 조부모 및 다른 친인척에 대한 애착으로 확장되고 그것은 다시 또래, 친구 및 배우자에까지 확장되어(Waters, Weinfeld, & Hamilton, 2000)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화되어지며(Kenny & Rice, 1995), 진로발달 영역을 포함한 개인 삶의 모든 영역들에 영향을 미친다(Blustein, Perzioso, & Schulthesis, 1995; Hazen & Shaver, 1990; Wright & Perrone, 2008에서 재인용).

양육자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로부터 유래하는 애착행동 형태는 통상적으로 회피와 애착의 두 독립적인 차원으로 개념화 되어진다(Brennam, Clark, & Shaver, 1998). 애착불안(attachment anxiety) 차원은 본인의 가치평가에 근거한 타인들과의 친밀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개인적 편안함 수준을 반영하며, 애착회피(attachment avoidance) 차원은 타인들이 그 개인에게 지지와 편안함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믿음들을 의미한다(Cann, Norman, Welbourne, & Calhoun, 2008). 성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Hazen과 Shaver(1990)의 연구에서 안정 애착된 사람들은 보다 직무에 적응되는 반면, 불안/양가적 애착과 회피 애착된 사람들은 직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우울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Hardy와 Barkham(1994)의 연구에서는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성과 및

직무와 관련된 관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회피애착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전반적 직무불만족, 직장동료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Downing과 Nauta(2010)의 연구와 Tokar 등(2003)의 연구에서 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결국 안정된 애착으로 인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은 자신에 맞은 진로와 직업선택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장석진, 2005)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유형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고등학생들의 우울/불안 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박정희와 이은희(2008)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Erickson은 청소년들이 현재의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 경험하는 혼란과 불안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정체성을 모색하고 확립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보았다(Erikson, 1968). Erickson의 정체성 이론을 개념화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틀은 Marcia의 정체성 지위(identity status) 개념으로서(Klimstra Hale III, Raaijmakers, Branje, & Meeus, 2010), Marcia는 정체성 탐색이 이루어졌는가(exploration)와 주어진 과업에 관여하는가(commitment)의 여부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을 네 가지

정체성 지위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과업에 관여하는 두 가지 정체성 지위와 과업에 관여하지 않는 두 가지 정체성 지위를 구분하였다. 정체성 성취(identity achieve)상태의 청소년들은 신중한 탐색과정에 기초하여 자기 방식으로 세워진 정체성이 규정지어진 방향으로 과업에 관여하는 것을 채택해왔다. 정체성 유실(identity foreclosure)상태의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역할과 가치들에 관여했지만 과업에 관여하기 이전에 진지한 탐색과정에 몰입했던 적이 없다. 이들은 중요한 대상들(보통은 부모)과의 동일시에 기초하여 정체성을 취하여 왔다.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와 정체성 혼미(identity diffusion)상태의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역할들과 가치들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체성 유예상태의 청소년들은 자신에 적합한 잠재적인 직업 역할들과 이념적 가치들을 탐색하거나 시험해보는 과정이 매우 많은 반면에 정체성 혼미 상태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Kroger, 2000).

정체성 혼미가 가장 덜 적응적인 정체성 상태이며, 정체성 유실과 정체성 유예가 중간정도 적응적인 상태이고, 정체성 성취가 가장 적응적인 정체성 상태로서(Waterman, 1999), Erikson(1968)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사춘기 전후의 방황과 갈등을 내포하는 역할혼미로부터 부모에게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방황과 갈등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체성 유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로서 자기를 탐색해가는 정체성 유예, 그리고 자아의 통합과 연속성을 갖는 정체성 성취로 이행하는 점진적인 발달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동안에 아동기의 사고

방식을 버리고 자신에 맞는 이념적 가치들을 탐색하여 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절박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Lewis, 2003), 정체성 탐색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중요하다(McAdams, 1988; Josselson, 1996).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은 진로 탐색, 자아통제, 성차, 성역할 사회화와 연관되어있으며, 자아정체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진로 발달 수준이 높고(Marcia, 1980), 자아정체감이 낮고 부족할수록 진로결정력이 낮고 미결정의 특성을 보인다(김은진, 천성문, 2001;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박아청, 우채영, 2008; 박정희, 이은희, 2008; Santos, 2001; Saka & Gati, 2007; 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Tokar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지위 상태에 따라서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부적응적 자아정체성 지위 상태(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는 진로미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안정적인 정체성 성취는 진로미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Erikson은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형성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인과 사회간의 상호조절과정으로 보았다(Bergh and Erling, 2005). 그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의 장애가 되는 조건의 개인적 요인으로서 유아기에 획득되는 개인의 기본신뢰감의 결핍, 자아통합의 효능성을, 상황적 요인으로서 생활경험의 동질성 내지 일관성, 장래 전망의 투명성, 이념적 체제의 일관성 여부, 역사적 변동,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역할실험이 허용되는 사회구조와 풍토의 문제를 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사

회구조는 잠재적으로 청소년들의 진정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방해한다고 보았다(서봉연, 1986).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또래와 친밀한 이성의 중요성이 현저히 증가되는 시기로서, 안전기로서 부모의 역할이 감소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변화된 환경에서 안전 기지를 재평가하여 부모로부터 더 많은 자율을 획득하고 타인들과 더 많은 관련을 맺게 된다(Zimmerman & Becker-Stoll, 2002). 즉 안정적으로 애착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족들에 의해서 제공된 안전기지에서부터 환경을 탐색할 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정체성 성취 상태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Marcia, 1988).

Kamptner(1988)는 가족관계에서의 안전감이 탐색과 실험을 촉진하는 기능을 해서 정체감 형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연구들(Campbell, Adams, & Dobson, 1984; Grotevant & Cooper, 1985; Paladino & Blustein, 1994; Papini, Micka, & Barnett, 1989; Schultheiss, & Blustein, 1994)에서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개별성과 정서적 유대가 청소년 정체성 탐색과 성숙한 자아 정체성의 중요한 예언변인임이 밝혀졌다(Blustein, Prezioso, & Schultheiss, 1995에서 재인용). 또한 Arseth, Kroger, Martinussen 및 Marcia(2009)는 메타연구를 통하여 안정애착이 정체성 성취 및 정체성 유실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정체성 혼란과 정체성 유예와 부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Downing과 Nauta(2010)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정체성 혼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바 있다.

Blustein 등(1995)은 안전감의 경험은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포함하는 진로발달을 촉진한다고 보

았는데, 이들의 주장은 애착 안전이 적응적 자아 정체성의 발달을 촉진하여 진로발달에 이론적(Blustein, 1996; Bordin, 1990; Erikson, 1968; Super et al., 1963)으로도 경험적(Blustein, Devenis, & Kindney, 1989; M. Lucas, 1997)으로도 연결된다는 애착이론의 중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Tokar et al., 2003에서 재인용). 즉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심리적 연결감이 자기탐색과 건강한 자아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며, 진로결정은 자아정체성 발달과 연합된 주요발달 과제이고, 일관된 안정적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효과적인 진로결정의 중요한 선행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에 가정한 Blustein 등(1995)의 주장에 근거하여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버려짐에 대한 공포나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적 학습을 위한 안전 기지를 제공받지 않아서 자신에 관한 확고한 신념인 자아 정체성을 발달시킬 기회가 적어져서 부적응적 자아정체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불안정 애착(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이 부적응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어 결국에는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요인들과 가족관련 요인들이 부분적이고 독립적으로 연구 되었을 뿐, 이들 요인들이 어떻게 진로 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이 진로 미결정 상태에 있는 대학생 내담자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관련 요인들 중 가장 핵심변인인 불안정 애착이 어떻게 이들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내담자의 불안정 애착이 부적응적 정체성 상태와 연결되어 어떻게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지를 알아보고 이 결과를 진로미결정 대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진로상담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어떤 불안정 애착 형태가 진로 미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 불안정 애착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서 어떤 부적응적 자아정체성 지위 상태가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조사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5개의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의시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856명의 자료 중 설문지에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한 846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2.28세(표준편차 2.75세)이었고, 1학년이 122명(14.42%), 2학년이 466명(55.61%), 3학년이 144명(17.18%), 4학년이 101명(12.05%)이었으며, 남학생이 276명(32.66%), 여학생이 569명(67.34%)이었다.

측정 도구

애착 척도.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불안과 회피 하위척도로 구성된 ECRS(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Scale)를 황경옥(2001)이 번안한 3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부모-자녀 애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회상적인 보고에 대한 타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성인의 낭만적 관계가 부모-자녀 관계로부터 유래하는 일반적 관계 도식(schema)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Brennan et al., 1998),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를 직접 질문하지 않고 성인의 낭만적 관계의 질문을 통해서 부모-자녀 애착 기능을 대리적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부모-자녀 애착관계를 대리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Downing & Nauta, 2010),

애착불안 척도(18문항)는 거절과 포기, 몰입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며, 회피애착 척도(18문항)는 의존성 또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친밀성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각 척도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내적일치도는 불안차원 .89, 회피차원 .85 로 나타났다.

자아정체성 척도. Bennion과 Adams(1986)가 개발한 EOMEIS-2(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s of Ego Identity Status-Revised)를 김화자(1998)가 번안한 6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 정치, 생활철학, 종교(개인적 이념 측면), 교우관계, 이성관계, 성역할, 여가활동(대인관계 측면)의 8가지 하위영역에 대해 4가지 정체성 발달단계(정체성 혼란,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 정체성 성취)의 수준들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2개씩 제시하는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에서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EOMEIS-2 점수는 4가지 정체성 상태로 범주화 하는 방법과 각 정체성 상태를 측정하는 연속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Adams, 1999; Lewis, 2003에서 재인용). 평균과 표준편차 및 분할점(M+SD)을 구하여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을 찾는 방법은 분할점이 임의적이고 개인들을 범주화하는 것은 정체성 발달의 보다 복잡한 형태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Waterman, 1993), 연속변인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통계적 검증력을 높이고,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할 수 있으며, 차의 정도가 적은 정체성 상태를 탐지할 수 있어서(Schwartz & Dunham, 2000),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이념적 측면과 대인관계 측면으로 구성된 각 자아정체성 상태(정체성 혼란,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 정체성 성취)를 측정하는 연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는 정체성 혼란 차원이 .66, 정체성 유실이 .84, 정체성 유예가 .69, 정체성 성취가 .79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 척도. Osipow, Carney, Winer, Yanico 및 Koschier(1987)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Scale(CDS)을 고향자(1992)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 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척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1, 2번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 선택에 대한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3-18번 문항은 점수

가 높을수록 진로가 더 미결정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서는 문항 1, 2를 역으로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미결정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원칙도는 4점 척도로 되어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에서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는 .8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대학생들의 불안정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자아정체성(정체성 혼란,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 정체성 성취)이 어떻게 진로미결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연령과 성차에 기인한 변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먼저 이들 통제변인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단계에서 자아정체성(정체성 혼란,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 정체성 성취) 상태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귀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이 측정 오차의 통제가 가능하며 간접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어서 (Preacher & Hayes, 2004) LISREL 8을 통하여 불안정 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성(혼란, 유실, 성취, 유예)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424명(짝수 집

단)을 대상으로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고 매개효과가 확인된 경우에 421명(홀수 집단)을 대상으로 매개모형의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

LISREL 8(Jöreskog & Sörbom, 1993)의 최대 가능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 χ^2/df 에 대한 p 값, 외에 NNFI(Non-Normed-Fit Index, Marsh, Balla, & McDonald, 1988), CFI(Comparative-Fit-Index: Bentler,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1990) 등 다른 다중 통계치들이 사용되어졌다. χ^2 는 표집의 크기가 커지면 모형에 자료가 잘 부합될 때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아서 부가적으로 χ^2/df 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합도 지수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χ^2/df 가 2이하가 바람직하지만(Bryne, 1989) 3이하인 경우까지 자료가 잘 부합되며(Kline, 1998), 대표본인 경우에는 χ^2/df 가 5이하인 경우까지 수용가능하다는(Kelloway, 1998) 기준과, 지수들이 .90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Maruyama, 1998) 일반적인 기준과 RMSEA 지수는 .05이하가 바람직하지만 .08이하까지는 수용 가능하다(Browne & Cudeck, 1993)는 기준에서

전반적인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공변량 구조모형에서 각 자아정체성 상태(정체성 혼란,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 정체성 성취)를 개인적/이념적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 측정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애착불안, 애착회피, 진로미결정 척도의 각 하위척도들은 각 측정치들을 요인분석하여 요인부하량이 비슷하도록 반분하였다. 그리고 반분한 문항들을 합산해서 하위척도 문항들을 구성하여 결과적으로 각 하위요인 당 2개씩의 하위척도들을 생성하여, 최종적으로 각 변수당 요인부하량이 비슷한 2개의 측정변수들을 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Bruch, Berko & Haase, 1998; Russel, Kahn, & Altmaier, 1998).

결 과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

불안정 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정체성(혼미, 유실, 성취, 유예), 진로미결정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애착불안은 진로미결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 및 평균

변 인	1	2	3	4	5	6	7
1. 애착불안	-						
2. 애착회피	.16***	-					
3. 정체성 혼미	.21***	.20***	-				
4. 정체성 유실	.19***	.11**	.31***	-			
5. 정체성 성취	-.07*	-.13***	-.31***	.02	-		
6. 정체성 유예	.24***	.03	.33***	.11**	.14***	-	
7. 진로미결정	.27***	.12***	.47***	.26**	-.37***	.37***	-
평균(M)	45.95	44.81	47.97	38.82	59.84	53.17	52.43
표준편차(SD)	10.39	8.40	8.51	10.67	10.20	8.82	15.04

주. N=845. * $p < .05$. ** $p < .01$. *** $p < .001$

정, 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와 정적이 상관이(각각, $r = .27, p < .001, r = .21, p < .001, r = .19, p < .001, r = .24, p < .001$), 정체성 성취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7, p < .05$). 따라서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 대학생일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고, 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 정도가 높고 정체성 성취 정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애착회피는 진로미결정, 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과 정적이 상관이(각각, $r = .12, p < .001, r = .20, p < .001$), 정체성 성취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3, p < .001$). 따라서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 대학생일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고, 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 정도가 높고 정체성 성취 정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진로미결정은 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감 유예와는 정적인 상관이(각각, $r = .47, p < .001, r = .26, p < .001, r = .37, p < .001$), 정체성 성취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7, p < .001$), 따라서 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 정도가 강할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고, 정체성 성취 정도가 강할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안정 애착과 자아정체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 애착 및 자아정체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로미결정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연령과 성별(통제변인)을 투입

표 2. 진로미결정에 대한 불안정 애착과 자아정체감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인	B	β
1	연령	-.78	-.14***
	성별	-.60	-.02
	R^2		.019
	ΔR^2		.019
2	연령	-.66	-.12***
	성별	-1.33	-.04
	애착불안	.34	.24***
	애착회피	.16	.09**
	R^2		.089
	ΔR^2		.070
3	연령	-.14	-.03
	성별	-.67	-.02
	애착불안	.13	.09**
	애착회피	-.01	-.00
	정체성 혼미	.34	.20***
	정체성 유실	.21	.15***
	정체성 성취	-.51	-.35***
	정체성 유예	.55	.32**
	R^2		.413
ΔR^2		.324	

* $p < .05$. ** $p < .01$. *** $p < .001$

하고, 2단계에서는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를 투입 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자아정체성(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성 성취, 정체성 유예)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되었듯이,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은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변인들에 의해서 7.0%가 설명되고,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이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24, t = 6.58, p < .001; \beta = .09, t = 2.65, p < .01$). 따라서 애착회피보다 애착불안이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자아 정체성에 의해서 32.4% 설명되고 정체성 유예, 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이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각각, $\beta = .20, t = 5.79, p < .001; \beta = .15, t = 4.89, p < .01; \beta = .32, t = 10.20, p < .001$), 정체성 성취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5, t = -11.17, p < .001$). 따라서 자아정체성 부족 상태는 진로미결정 정도를 심화시키고 자아정체성 성취 상태는 진로결정 정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안정 애착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성의 매개효과

불안정 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성(혼미, 유실, 성취, 유예)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424명(짝수 집단)을 대상으로 가설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애착불안과 진로미결

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의 매개역할과 회피애착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유실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매개효과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421명(홀수 집단)을 대상으로 매개모형의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

가.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혼미의 매개효과

1) 모형검증

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체성 혼미를 통하여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인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6, N = 424) = 17.85, p = .007, \chi^2/df = 2.98, NNFI = .972, CFI = .989, RMSEA = .068$).

2) 모형비교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애착불안이 정체성 혼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애착불안이 정체성 혼미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인 경합모형에 대한 부합도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 N = 424) = 17.14, p < .001$).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비해서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애착불안이 정체성 혼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착불안, 정체성 혼미 및 진로미결정 간의 최종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구조경로 분석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애착불안 수준은 직접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beta = .22, t = 2.86, p < .01$), 정체성 혼미 수준을 상승시켜서($\beta = .52, t = 5.35, p < .01$) 간접적으로도 이들의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beta = .08, t = 2.56, p < .01$). 따라서 대학생의 애착불안 수준이 이들의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미 수준을 상승시켜서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교차타당화 모형 검증

홀수 집단($N = 421$)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가설적 최종모형(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체성 혼미를 통하여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모형($\chi^2(6, N = 421) = 19.94, p = .003, \chi^2/df = 3.32, NNFI = .972, CFI = .988, RMSEA = .074$)보다는 완전매개모형($\chi^2(7, N = 421) = 19.93, p = .006, \chi^2/df = 2.76, NNFI = .976, CFI = .989, RMSEA = .066$)이 더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 N = 421) = .01, p > .05$). 타당화 집단의 애착불안, 정체성 혼미 및 진로미결정간의 완전매개모형의 구조경로 분석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 정체성 혼미의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부합도($N = 424$)

모형	χ^2	df	p	NNF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17.85	6	.007	.972	.989	.068
완전매개모형	30.71	7	<.001	.951	.977	.089

주. NNFI = non-normed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그림 1. 애착불안과 정체성 혼미 및 진로미결정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애착불안 수준은 정체성 혼미 수준을 상승시켜서($\beta = .39, t = 5.68, p < .01$) 간접적으로도 이들의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beta = .31, t = 6.11, p < .01$). 따라서 대학생의 애착불안 수준이 정체성 혼미 수준을 상승시켜서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유실의 매개효과

1) 모형검증

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체성 유실을 통하여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인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6, N = 424) = 5.36, p = .499$. NNFI = 1.00, CFI = 1.00, RMSEA = .000).

2) 모형비교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애착불안이 정체성 유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 미친다는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애착불안이 정체성 유실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인 경합모형에 대한 부합도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1, N = 424) = 15.8, p < .001$).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비해서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애착불안이 정체성 유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착불안, 정체성 유실 및 진로미결정간의 최종 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구조경로 분석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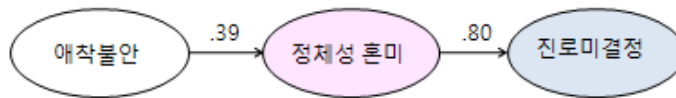


그림 2. 애착불안과 정체성 혼미 및 진로미결정간의 교차타당화 집단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표 5.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 정체성 유실의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부합도(N = 424)

모형	χ^2	df	p	NNF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5.36	6	.499	1.00	1.00	.000
완전매개모형	21.16	7	.004	.973	.988	.069

주. NNFI = non-normed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불안애착 수준은 직접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beta = .23, t = 4.27, p < .01$), 정체성 유실 수준을 상승시켜서($\beta = .27, t = 4.41, p < .01$) 간접적으로도 이들의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beta = .06, t = 2.84, p < .01$). 따라서 대학생의 불안애착 수준이 이들의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체성 유실 수준을 상승시켜서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교차타당화 모형 검증

홀수 집단($N = 421$)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가설적 최종모형(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체성 유실을 통하여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모형(χ^2

(6, $N = 421$) = 12.45, $p = .051$. $\chi^2/df = 2.08$, NNFI = .988, CFI = .995, RMSEA = .051)이 완전매개모형(χ^2 (7, $N = 421$) = 32.88, $p < .001$. $\chi^2/df = 8.22$, NNFI = .956, CFI = .979, RMSEA = .094)보다 더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1, $N = 421$) = 20.43, $p < .001$).

타당화 집단의 애착불안, 정체성 혼미 및 진로미결정 간의 완전매개모형의 구조경로 분석결과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불안애착 수준은 직접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beta = .23, t = 4.75, p < .01$), 정체성 유실 수준을 상승시켜서($\beta = .18, t = 3.38, p < .01$) 간접적으로도 이들의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beta = .07, t = 3.09, p < .01$). 따라서 대학생의 불안애착 수준이 정체성 유실 수준을 상승시켜서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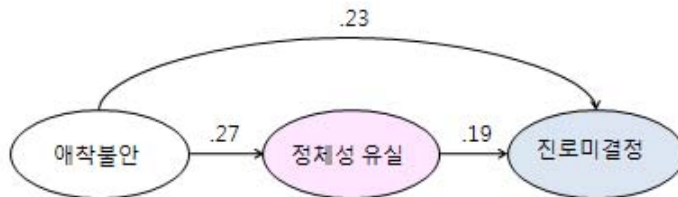


그림 3. 불안애착과 정체성 유실 및 진로미결정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4. 애착불안과 정체성 유실 및 진로미결정간의 교차타당화 집단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다.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유예의 매개효과

1) 모형검증

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체성 유예를 통하여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인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 N = 424) = 9.15, p = .165, NNFI = .993, CFI = .997, RMSEA = .035$).

2) 모형비교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애착불안이 정체성 유예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 미친다는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애착불안이 정체성 유예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인 경합모형에 대한 부합도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 N = 424) = 11.7, p < .001$).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비해서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애착불안이 정체성 유예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착불안, 정체성 유예 및 진로미결정 간의 최종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구조경로 분석결과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불안애착 수준은 직접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beta = .20, t = 3.74, p < .01$), 정체성 유예 수준을 상승시켜서($\beta = .20, t = 3.52, p < .01$) 간접적으로도 이들의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beta = .10, t = 3.04, p < .01$). 따라서 대학생의 불안애착 수준이 이들의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체

표 6.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 정체성 유예의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부합도(N = 424)

모형	χ^2	df	p	NNF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9.15	6	.165	.993	.997	.035
완전매개모형	20.65	7	.004	.971	.986	.068

주. NNFI = non-normed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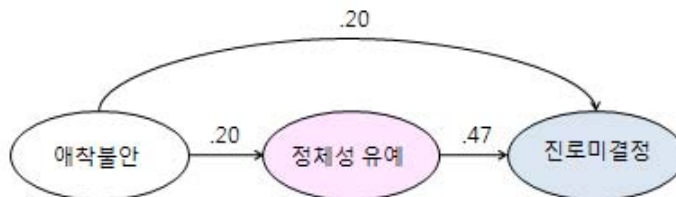


그림 5. 애착불안과 정체성 혼미 및 진로미결정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성 유예 수준을 상승시켜서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교차타당화 모형 검증

홀수 집단(N = 421)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가설적 최종모형(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체성 유실을 통하여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모형(χ^2 (6, N = 421) = 8.96, p = .176. NNFI = .994, CFI = .998, RMSEA = .034)이 완전매개모형(χ^2 (7, N = 421) = 18.40, p = .010. NNFI = .978, CFI = .990, RMSEA = .062)보다 더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1, N = 421) = 9.44, p < .01).

타당화 집단의 애착불안, 정체성 유예 및 진로미결정 간의 완전매개모형의 구조경로 분석결과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불안애착 수준은 직접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β = .17, t = 3.39, p < .01), 정

체성 유예 수준을 상승시켜서(β = .30, t = 5.73, p < .01) 간접적으로도 이들의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β = .14, t = 4.26, p < .01). 따라서 대학생의 불안애착 수준이 정체성 유예 수준을 상승시켜서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애착회피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유실의 매개효과

1) 모형검증

애착회피가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체성 유실을 통하여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인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6, N = 424) = 6.40, p = .380. NNFI = .998, CFI = .999, RMSEA = .012).

2) 모형비교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애착회피가 정체성 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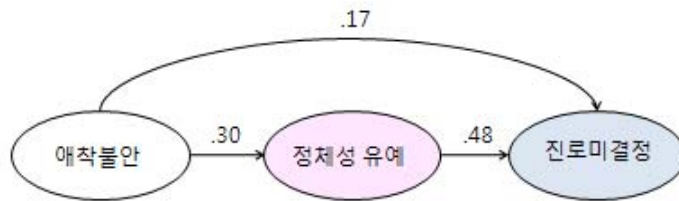


그림 6. 애착불안과 정체성 혼미 및 진로미결정간의 교차타당화 집단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표 7. 애착회피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 정체성 유실의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부합도(N = 424)

모형	χ^2	df	p	NNF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6.40	6	.380	.998	.999	.012
완전매개모형	7.43	7	.385	.999	.999	.012

주. NNFI = non-normed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애착회피가 정체성 유실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인 경합모형에 대한 부합도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 N = 424) = 1.03, p > .05$).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인 부분매개모형보다 경합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이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애착회피가 정체성 유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착불안, 정체성 유실 및 진로미결정간의 최종 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구조경로 분석결과가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애착회피 수준은 정체성 유실 수준을 상승시켜서($\beta = .18, t = 2.76, p < .01$) 간접적으로 이들의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beta = .04, t = 2.45, p < .05$). 따라서 대학생의 애착회피 수준

이 이들의 정체성 유실 수준을 상승시켜서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교차타당화 모형 검증

홀수 집단($N = 421$)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가설적 최종모형(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체성 유실을 통하여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모형($\chi^2(6, N = 421) = 18.80, p = .005, NNFI = .974, CFI = .990, RMSEA = .071$)이 완전매개모형($\chi^2(7, N = 421) = 22.47, p = .002, NNFI = .978, CFI = .990, RMSEA = .062$)보다 더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결국 애착회피가 직접적으로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체성 유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타당화 집단의 애착회피, 정체성 유실 및 진로미결정 간의 완전매개모형의 구조경로 분석결과가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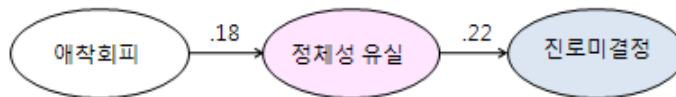


그림 7. 애착회피와 정체성 유실 및 진로미결정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8. 애착회피와 정체성 유실 및 진로미결정간의 교차타당화 집단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애착회피 수준은 직접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beta = .10, t = 2.02, p < .01$), 간접적으로도 정체성 유예 수준을 상승시켜서($\beta = .16, t = 2.53, p < .05$) 간접적으로도 이들의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beta = .06, t = 2.45, p < .05$). 따라서 대학생의 애착회피 수준이 정체성 유예 수준을 상승시켜서 진로미결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안정 애착과 자아정체성 상태 및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과는 정적인 상관인, 정체성 성취와는 부적인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이 자아정체성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Reich와 Siegel (2002)의 연구결과,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정체성 혼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Downing과 Nauta(2010)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며, 가족관계에서의 안전감이 탐색과 실험을 촉진하는 기능을 해서 정체감 형성을 강화한다는 Kamptner(1988)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불안정 애착이 부적응적 정체성 상태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개별성과 정서적 유대가 청소년 정체성 탐색과 성숙한 자아 정체성의 중요한 예언변인임이

확인된 기존의 결과들(Campbell, Adams, & Dobson, 1984; Grotevant & Cooper, 1985; Paladino & Blustein, 1994; Papini, Micka, & Barnett, 1989; Schulthesis, & Blustein, 1994; Blustein et al., 1995에서 재인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성숙한 자아 정체성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진로미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이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된 근로자들이 직장 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Hardy & Barkham, 1994; Hazen & Shaver, 1990) 및 대학생들의 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들(Downing & Nauta, 2010; 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과 일치한다.

불안정 애착이 진로미결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어릴 때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 청소년기에 진로미결정 상태에 빠짐을 의미한다. 특히 1세 때의 안정애착이 18세 때의 진로발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Roisman, Bahadur 및 Oster(2000)의 종단적 연구(2000) 결과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에 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 중 애착회피보다 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학상담 현장에서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을 상담할 때, 진로 미결정을 유발

한 원인으로 부모와의 애착문제 특히 애착불안까지 탐색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불안정 애착보다 자아정체성 수준이 진로미결정 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정체성 지위 상태(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는 진로미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적응적 정체성 지위 상태(정체성 성취)는 진로미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변인들 중 자아 정체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 연구결과들(박정희, 이은희, 2008; Saka & Gati, 2007; Santos, 2001; Saunders et al., 2000)과 일치하며, 자아정체성 상태가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핵심적인 성격특성임을 재확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 결과는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을 실시할 때에 진로미결정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성격특성으로서 이들의 자아정체성 상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미결정은 크게 발달적 미결정 상태로 결단성이 없는 미결정 상태(being undecided)와 만성적으로 우유부단한 무결정 상태(being indecisive)라는 두 가지 기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Callanan & Greenhaus, 1992),, 만성적 진로 미결정 집단은 높은 불안수준, 자신과 선택과정에 대한 부정적 사고, 확산된 개인적 정체감이 특징이다(Cohen, Chartrand, & Jowdy, 1995; Chartrand, Rose, Elliot, Marmarosh, & Caldwell, 1993; Meldahl & Muchinsky, 1997; Saka & Gati, 2007에서 재인용). 그런데 심리적 문제들로 인하여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진로상담을 통하여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Hartman, Fuqua, & Blum, 1985; Osipow, Carney, Winer, Yanico, & Koschir, 1976; Brown & Brooks, 1991에서 재인용) 이들에게는 진로문제보다는 성격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임을 시사한다. 즉 만성적 진로미결정자들의 진로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격적 특징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자아 정체성 상태가 핵심 성격특성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자아 정체성을 탐색하고 확립해주는 심리적 개입전략이 효과적인 상담전략으로 여겨진다. .

넷째,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 상태가, 애착회피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유실 상태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안정 애착이 적응적 자아정체성의 발달을 촉진하여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Blustein, Devenis, & Kindney, 1989; M. Lucas, 1997; Tokar et al., 2003에서 재인용)과 일치한다. 즉 불안정 애착 정도가 강한 대학생들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심리적 연결감을 갖지 못하고 자기탐색과 건강한 자아정체성 발달을 시키지 못하여 결국에는 진로미결정 상태에 빠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불안정 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자신과 진로에 대한 탐색을 억제하여 부적응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하여 결국에는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는 애착이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불안정 애착과 불안정한 자아정체성 상태(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

성 유예)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불안정 애착이 부적응적 자아정체성 지위 상태를 심화시켜 결국에는 진로미결정을 강화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과정에서 이들의 성격적 측면 특히 자아정체감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이에 따른 차별적인 상담적인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이 불안정 애착상태에 있음을 고려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관계 형성에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결국 상담자는 이들이 진로상담과정에서 상담관계를 안전기지로서 활용하면서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폭넓은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수거한 자료들을 가지고 수거한 결과이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데는 제한적이어서 향후 종단적 자료를 통한 본 연구 결과의 재확인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만을 임의로 선정하여 얻어진 결과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및 대학의 대규모 표집 조사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자, 정남운 (2008). 진로미결정과 애착, 자기대상육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3), 229-249.
- 김민선, 서영석 (2010). 자기효능감 · 개인배경 · 맥락적 변인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2), 67-96.
- 김은진, 천성문 (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자아 정체감을 매개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4(1), 147-162.
- 김은형 (2010).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3(1), 79-96.
- 김화자 (199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역기능적 가족구조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분석. 직업교육연구, 27(2), 1-26.
- 박아청, 우채영 (2008).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의사결정 수준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2(1), 69-85.
- 박정희, 이은희 (2008).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미결정: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03-123.
- 박현일, 김기원 (2003). 군집분석을 통한 진로미결정 집단의 유형연구: 전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24(2), 161-187.
- 배중훈 (2001). 군집분석을 통한 진로 미결정 하위 유형의 탐색. 진로교육연구, 14, 223-244.
- 서봉연 (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일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지선 (2005). 전문대 비서과 재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비서학 논총, 14(1), 193-217.
- 이재창, 최인화 (2006). 완벽주의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

- 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53-872.
- 장석진 (2005). 대학생의 애착과 진로 의사결정 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9, 91-115.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장선철 (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33-551.
-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진로미결정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9(2), 551-564.
- 황경옥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mir, T., & Gati, I. (2006). Face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34, 483-503.
- Arseth, A. K., Kroger, J., Martinussen, M., & Marcia, J. E. (2009). Meta-analytic studies of identity status and the relational issues of attachment and intimacy.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9, 1032.
- Bennion, L. D., & Adams, G. R., (1986). A revision of the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n identity instrument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Research*, 1, 183-198.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rgh, S., & Erling, A. (2005).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 Swedish study of identity status using the EOM-EIS-II. *Adolescence*, 40, 378-396.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23, 416-432.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own, D., & Brooks, L. (1991). *Career counseling techniques*. Boston: Allyn & Bacon.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uch, M. A, Berko, E. H. & Haase, R. F. (1998). Shyness, masculine ideology,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motional inexpressiveness: Testing a mediational model of men's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84-97.
- Bryne, B. (1989). *A primer of LISREL: Basic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models*. New York: Springer Verlag.
- Callanan, G. A., & Greenhaus, J. H. (1992).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s: An examination of multiple sub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12-231.
- Cann, A., Norman, M. A., Welbourne, J. L., & Calhoun, L. G. (2008). Attachment styles, conflict styles and humor styles: Interrelationships and associations with relationship satisfac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2, 131-146.
- Chandler, L. A., & Gallagher, R. P. (1996).

- Developing a taxonomy for problems seen at a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Measurement & Evaluation in Counseling & Development*, 29, 4-12.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Downing, H. M., & Nauta, M. M. (2010). Separation-individuation, exploration, and identity diffusion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 207-227.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affner, D. C., & Hazler, R. J. (2002). Factors related to indecisiveness and career indecision in undecid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3, 317-326.
- Germeijs, V., & Boeck, P. D. (2002). A measurement scale for indecis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career indecision and other types of indecis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8, 113-122.
- Gordon, L., & Meyer, J. C. (2002). Career indecision amongst prospective university student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32, 41-47.
- Hardy, G. E., & Barkham, M.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attachment styles and work difficulties. *Human Relations*, 47, 263-281.
- Hazan, C., & Shaver, P. R.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Josselson, R. (1996). *Revisiting herself: The story of women's identity from college to mid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mptner, N. (1988). Identity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Causal modeling of social and familial influ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493-514.
- Kelloway, E. K. (1998). *Using LISREL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researcher's guide*. Thousand Oaks, CA: Sage.
-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ounseling Psychologist*, 23, 433-456.
- Klimstra, T. A., Hale III, W. W., Raaijmakers, Q. A. W., Branje, S. J. T., & Meeus, W. H. J. (2010).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Change or stability?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9, 150-162.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Kroger, J. (2000). Ego identity status research in the new millennium.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145-148.
- Lewis, H. L., (2003). Difference in ego identity among college students across age, ethnicity, and gender.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3, 159-189.
- McAdams, D. P. (1988). *Power, intimacy, and the life story: Personological inquiries into identity*. New York: Guilford.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159-187). New York: John Wiley.

- Marcia, J. E. (1988). Common processes underlying ego-identity, cognitive moral development and individuation. In D. K. Lapsley & F. C. Power(Eds.), *Self, ego and identity* (pp. 211-225). New York: Springer-Verlag.
- Marsh, H. W., Balla, J. R., and McDonald, R. P. (1988). Goodness-of-fit index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 391-411.
- Maruyama, G. M. (1998). *Basic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Morgan, T., & Ness, D. (2003).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of first-year students. *The Canad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 33-39.
- Multon, K. D., Heppner, M. J., Gysbers, N. C., Zook, C., & Ellis-Kalton, C. A. (2001). Client psychological distress: An important factor in career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 324-335.
- Nota, L., Ferrari, L., Solberg, V. S. & Soresi, S. (2007). Career search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career indecision with Italian yout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 181-193.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L., Yanico, B., Koschier, M. J. (1987).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eich, W. A., & Siegel, H. I. (2002). Attachment, ego-identity development and exploratory interest in university student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 125-134.
- Roisman, G. I., Bahadur, M. A., & Oster, H. (2000). Infant attachment security as a discriminant predictor of career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Research*, *15*, 531-545.
- Perrone, K. M., Webb, L. K., & Jackson, Z. V. (2007).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ttachment, work and family roles, and life satisfact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5*, 237-248.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717-731.
- Roelofs, J., Meesters, C., Huurne, M. T., Bamelis, L., & Muris, P. (2006). On the links between attachment style,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non-clinical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 331-344.
- Russell, D. W., Kahn, H.,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aka, N., & Gati, I. (2007).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persistent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340-358.
- Santos, P. J. (2001). Predictors of generalized indecision among Portuguese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 381-396.
-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 P., Jr., &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88-298.
- Schneider, B., & Stevenson, D. (1999). *The ambitions generation: America's teenager. Motivated but directionless*. Chicago: Basic Books.

- Schwartz, S. J., & Dunham, R. M. (2000). Identity status formulae: Generating continuous measures of the identity statuses from measures of exploration and commitment. *Adolescence, 35*, 147-165.
- Shaver, P. R., & Hazen, C. (1993).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In D. Pertiman & W. Jones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Vol. 4, pp.29-70). London: Jessica Kingsley.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Tokar, D. M., Withrow, J. R., Hall, R.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19.
- Waterman, A. S. (199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identity formation: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In J. E. Marcia, A. S. Waterman, D. R. Matteson, S. L. Archer, & J. L. Orlofsky (Eds.), *Ego 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pp. 42-60). New York: Springer-Verlag.
- Waterman, A. S. (1999). Identity, the identity status, and identity status development: A contemporary statement. *Developmental Review, 19*, 591-621.
- Waters, E., Weinfield, N. S., & Hamilton, C. E. (2000). The stability of attachment security from infancy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General discussion. *Child Development, 71*, 703-706.
- Wright S. L., & Perrone, K. M. (2008). The impact of attachment on career-related variabl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proposed theoretical framework to guide future researc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5*, 87-106.
- Zimmerman, P., & Becker-Stoll, F. (2002). Stability of attachment representations during adolescence: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25*, 107-124.

원고접수일: 2011년 4월 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1년 6월 6일

게재결정일: 2011년 6월 15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1. Vol. 16, No. 2, 401 - 425

The Impact of Insecure Attachment and Ego Identity on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Eun-Hee Lee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insecure attachment, ego identity and career indecision. It also explored the mediating effect of ego 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846 college students of five universiti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had a positive influences on career indecision and attachment anxiety had influences on career indecision more than attachment avoidance. Diffusion Status, Foreclosure Status and Moratorium Status had a influences on career indecision positively. But Achievement Status had a influence on career indecision negatively. Diffusion Status, Foreclosure Status and Moratorium Status were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career indecision. Foreclosure Status was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career indecision. This study reveals that, insecure attachment and maladjustment ego identity were a significant predictor of career indecision, and insecure attachment indirectly affected career indecision through the maladjustment ego identity

Keywords: insecure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ego identity, career indecision